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청사 방문 고객 편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양선우 기자

최종 기사입력 2024-12-17 14:43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최근 청사 건물 1층에 설치한 무인민원발급기./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가 최근 청사 건물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했다.

17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 따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에 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농지대장·농업경영체, 지방세·국세증명서, 지적·토지·건축 등의 서류뿐만 아니라, 차량, 교통,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서류들도 발급받을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진도지사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여러 번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진도군 민원봉사과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한 실무 협의 등을 거쳤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통해 농어촌 지역 교통 소외계층의 불편 해소, 진도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와 이용 편의 도모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황명순 진도지사장은 "진도군민들의 행정서비스 편의를 위해 진도군과 함께 지속 협의하며,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양선우 기자 ysw6544@
